

57번째, 농기구이야기

닭의 안식처 ‘어리’



(어리 © 농업박물관)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3. 4.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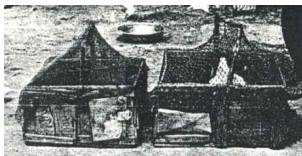
1. 어리란

어리는 지방에 따라 뿔가리통(경남 영산), 달구가리(전남 보성), 가리(전남 영광), 달구어까리(전남 구례), 닭덕거리(전북 남원), 닭장이라고 부르고, 한문으로는 籠(『증보산림경제』)·鷄棲(『동문류해』)라고 한다. 쓰임새는 병아리와 어미닭을 가두는 일종의 우리로 보통 20여 마리 되는 병아리와 어미닭을 저녁에 가두었다가 아침에 풀어 놓는다. 대나무나 싸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장군, 반구(半球), 장(櫟) 모양으로 만들며, 어리장수가 닭이나 꿩 등을 팔러 다닐 때 지게 위에 올려서 다닐 때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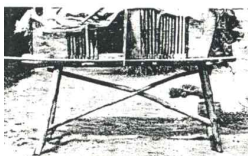
2. 다양한 형태의 어리

어리는 지방에 따라 만드는 재료와 형태가 다르다. 김광연(1969)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지도를 통해서 다양한 어리의 형태를 살펴보자. 조사된 어리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전라남북도이다.¹⁾

경기도(김포 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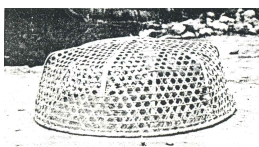
전라북도(완주 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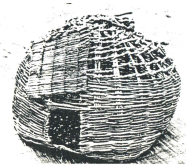
전라남도(구례)



전라남도(보성)



강원도(삼척 도계)



충청북도
(제천 봉양)



경상남도
(양산)



1) 조사된 자료는 각 도를 대표하는 자료이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만을 이야기한다.

형태는 대부분 강원도, 경상도 전라남도과 같이 둥근 형태이며, 충청북도, 경기도, 전라북도과 같이 사각의 형태도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강원도는 바닥이 사각형이며 싸리를 이용해 촘촘하게 만들었다. 가운데 네모난 입구가 뚫려 있다. 천정은 돔모양으로 둥글게 엮었으나, 바닥과 벽체보다는 듬성듬성하게 엮은 것이 특징이다. 충청북도는 직사각형으로 네 개의 나무기둥을 중심으로 싸리와 짚, 나무를 이용해 바닥, 벽, 천정을 만들었다.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입구가 있어 닭이 드나들 수 있다. 경상남도는 장군과 유사한 모양으로 둥글고 가로가 길고 가름하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 쉽게 드나들 수 있으며, 대나무로 만든 층계가 있어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네모난 나무귀짝위에 그물을 얹어 천정을 만들었다. 전라남도는 바닥은 편평하고 뚫려 있어 병아리를 가두는데 사용한다.

관리방법에서 어리의 차이는 닭과 병아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입구가 있는 것(강원도, 충청도, 경상남도)과 입구가 없이 밥공기를 얹어 놓은 것처럼 바닥이 편평하고 위는 둥글게 짠 것으로 땅에 얹어 놓고 닭과 병아리를 가둬두는 것(경기도, 전라남도)도 있다. 전자는 싸리나 대나무로 바닥까지 촘촘하게 만들어 이동이 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닭장 안에 있는 어리를 들어서 넓은 마당 같은 곳에 옮겨 풀어놓았다가 해질녘에 병아리를 다시 어리 안에 넣고 닭장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후자는 이동보다는 한 곳을 지정하여 어리를 얹어 마당에 가두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간혹 발채를 펴고 얹어서 어리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 김홍도 [초도호연]〈모당평생도〉, 1781(8첩병풍, 국립중앙박물관)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의 작품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기념할 만한 경사스런 일을 선별하여 그린 풍속화이다. 왼쪽 그림은 그 중 돌잔치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어리에 담긴 닭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3. 어리전, 어리장수

어리와 관련된 말 중에는 어리장수와 어리전이 있다.

농가에서는 소와 돼지 외에도 닭과 오리 등을 키우기도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를 사고팔고 했다. 이에 닭이나 꿩, 오리, 토끼 등을 가두어 놓고 파는 가게를 어리전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어리전은 영세한 가게로 무분각전(無分各廛), 즉 시전(市廛) 중에서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가게에 속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닭을 달걀과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을 했으며, 용돈을 얻기 위해 시장에 내다 팔고 사기도 하였다. 닭 외에도 꿩과 고양이, 강아지, 토끼 등 다양한 가축을 파는 곳이었다. 그 시장 지역 내 농민들이 자신이 직접 키운 닭을 팔기도 했지만, 전문적으로 닭을 가둔 어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닭을 파는 어리장수들도 쉽게 눈이 띄었다.



▶ 조선풍속화로 보는 어리장수



▶ 1910년의 어리장수 (네셔널지오그래픽 1910년 11월호)



【네셔널지오그래픽 1910년 11월호】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김광언, 1969,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인병선, 199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한국농기구도감』

박호석, 2004, 『한국의 재래농기구』